

HOME > Investors > PEF/VC

현대IFC M&A

우리·베일리PE, 무차입으로 3400억 전액 에쿼티 투자

서재원 기자 2026.01.16 06:30



현대제철 잔류 설계로 지배구조 변경 우려 불식...조선업 호황에 LP 오버부킹



현대IFC 순천 공장(출처=현대IFC 홈페이지)

많이 본 뉴스

- 1 이상명 삼성바이오 상무 "CDC
- 2 이상훈 ABL바이오 대표 "ABL
- 3 알테오젠 "ALT-B4 추가 기술
- 4 지배구조 TF 첫 회의부터 '차관
- 5 AI 등에 업고 질주, TSMC 순O
- 6 휴젤, 글로벌 에스테틱 선도기
- 7 지배구조 선진화 vs 관차...금
- 8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 "'신약·
- 9 한화 막내가 쏘아 올린 독립 신
- 10 디앤디파마텍 "DD01 계열 내

기업회원 전용 유료 미디어
DealSite+Plus
이제 개인 투자자도 구독하실 수

"투자"는 "정보싸움"입니다.
본인의 투자 목적에 맞는 상품을 구독
정보싸움에서 앞서가세요!

Issue Today

신탁사와 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밀 빠진 독' 모회사 투...▪ 4천억 집재손실 내재.....▪ 모기업 도움 없이 자생...	제약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셀트리온▪ HK이노원▪ 휴온스, 3
3N2K 실적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카오게임즈, 신작 러...▪ 크래프톤, '배그' 파워에...▪ 넷마블, 수익성 개선 확...	메자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림시큐▪ 무이자로▪ 에스티, 7

Editor's Choice

- 

우리·베일리PE, 두
0억 전액 에쿼티 투
#현대제철 #현대IFC
- 

대동그룹, '4세 승
#대동그룹 #대동 #1

추천키워드

#현대제철

#현대IFC

#조선업

#단조

#우리PE자...

#베일리프...

#PE

실시간 속보 >

랭킹뉴스 >

[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우리PE자산운용과 베일리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이 현대제철의 알짜 자회사 현대IFC 인수를 성사시키며 자본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 이번 거래는 강성 노조의 반발과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라는 이중고를 극복하고 일궈낸 성과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차입금 없이 전액 에쿼티(자기자본)만 투입하는 딜 구조를 채택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우리·베일리PE는 현대제철이 보유한 현대IFC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프로젝트펀드 조성을 끝마쳤다. 총 거래 금액은 3393억원이다.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가 2년여 전부터 추진해온 이번 매각은 한때 동국제강이 인수를 검토하다 재무 부담 등을 이유로 철회하는 등 난항을 겪었으나 우리·베일리PE가 정교한 딜 구조를 앞세워 최종 승자로 낙점됐다.

업계는 이번 딜을 고난도 거래로 분류한다. 현대IFC 노조가 사모펀드로의 매각에 따른 고용 불안을 이유로 국회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적 논란들이 여론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인수 측의 심리적 압박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도자인 현대제철을 단순 매각자가 아닌 파트너로 잔류시키는 전략을 세웠다. 현대제철이 매각 대금의 20%를 펀드에 재출자하도록 설계하여 지배구조 변경이 아닌 전략적 협력이라는 명분을 확보했다. 노조와는 고용 승계와 임금 및 복지 수준 유지를 약속하며 경영권 인수의 장애물을 넘었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도 차별화된 흐름이 감지됐다. 당초 금리 변동성에 대비해 인수금융 활용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유한책임투자자(LP)들의 수요가 몰리며 전액 에쿼티 투자로 결정됐다. 현대IFC의 주요 전방 산업인 조선업이 호황기에 진입하며 향후 기업가치 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LP들이 줄을 이은 결과다. 증권사와 캐피탈 등 20여곳의 금융기관이 참여한 프로젝트펀드는 목표액을 초과하는 오버부킹을 기록했다. 실제 모집한 2700억원에 현대제철의 재출자분 약 700억원을 더해 인수 대금을 마련했다.

이번 딜의 핵심은 카브아웃(사업부 분할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최소화한 설계에 있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자산을 매각하고 떠나는 구조가 아니라 원재료 공급처이자 주요 고객사인 현대제철을 주주로 남겨둌으로써 안정적인 캐피브 물량을 확보했다는 점이 주효했다. 현대IFC는 조선과 자동차 및 방산 산업 등에 쓰이는 단조 제품을 생산하며 향후 항공 분야로의 사업 확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현대제철 입장에서조차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정 지분을 유지하며 현대IFC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재원 기자 wjs4793@dealsite.co.kr

관련기사

-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100% 처분...3393억원 규모
- '사업재편' 현대제철, 알짜 자회사 매각 추진 배경은

관련종목

현대제철									
관련기사보기 >									
(기간 : 최근 6개월) (단위 : KRW, 백만원, %)									
구분	모집방법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표면금리	만기수익률	발행가액	발행주수
SB	공모	현대제철 141-3	2025-09-10	2032-09-10	40,000	3.209			
SB	공모	현대제철 141-2	2025-09-10	2030-09-10	70,000	2.886			

#카카오게임즈 #발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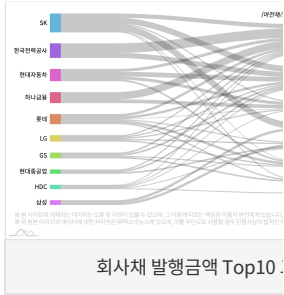
알테오젠 "ALT-B4 전 임박"

#알테오젠 #전태연

지배구조 선진화 v. 원, 특별점검 '선전'

#금융감독원 #금융위

Infographic News



추천키워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엔씨소프트

NAVER

+ Deal List더보기

많이 본 뉴스

2026-01-19

- 1

이상명 삼성바이오 상무 "CDO도 기술 초격차 박차"
- 2

이상훈 ABL바이오 대표 "ABL001 로열티 수령 가시화"
- 3

알테오젠 "ALT-B4 추가 기술 이전 임박"
- 4

지배구조 TF 첫 회의부터 '차관 주재'...은행지주 겨논 금융당국
- 5

AI 등에 업고 질주, TSMC 순이익 35% '잭팟'
- 6

휴젤, 글로벌 에스테틱 선도기업 도약 '출사표'
- 7

지배구조 선진화 vs 관치...금감원, 특별점검 '선전포고'
- 8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 "'신약·LLM·자동화' AI 전략 3대 축"
- 9

한화 막내가 쏘아 올린 독립 신호탄
- 10

디앤디파마텍 "DD01 계열 내 최고 가능성 확인"

Show more

ISSUE Today

딜사이트 플러스가 주목하는
오늘의 이슈를 확인하세요!

전체보기

신탁사와 모기업

- '밑 빠진 독' 모회사 투입 자본 '증발'
- 4천억 잠재손실 내재...자채 대응 역부족
- 모기업 도움 없이 자생력 '입증'

제약바이오 투자 픽

- 셀트리온, '신약' 주도 외부투자 드라이브
- HK이노엔, '케이캡' 넥스트 공략지 일본 정조준
- 휴온스, 실리주의·리스크 분산 노림수

3N2K 실적전망

- 카카오게임즈, 신작 러시로 26년 반전 모색
- 크래프톤, '배그' 파워에도 여전히 단일 IP 리스크
- 넷마블, 수익성 개선 확인...26년은 신작 검증의 해

섹션뉴스

Deals산업IPO제약·바이오건설·PFInvestor

·영업손실	58억원	·결손금	140억원
·순손실	59억원	·자기자본	184억원
·영업손실률	77%	·부채총계	184억원
·순손실률	79%	·자본총계	367억원
·현금성자산	67억원		
한양로보틱스			
* 2025년 3분기 기준			
·매출	102억원	·결손금	250억원
·영업손실	31억원		
·순손실	44억원		

나우로보틱스, 자본잠식 리스크 감수한 적자기업 인수

코스닥 상장사 '나우로보틱스'가 전환사채(CB)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인수합병(M&A)에 나섰다. 인수 대상 기업이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즉시 활용 가능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2026.01.16 11:18

기자수첩한화 막내가 쏘아

2026.01.16 08:39

저평가에 베팅한 한국렌탈

2026.01.15 16:50

본 사이트는 투자권유나 종목추천을 하지 않으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의 최종 책임은 본 정보를 열람하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의 행위는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딜사이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3375 등록일 : 2014.10.23 제호 : 딜사이트 플러스 발행/편집인 : 이승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진철 발행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충정타워 14층 유료 서비스 문의 : 02-6952-0368, 02-6952-0385 대표번호 : 02-6952-0384 FAX : 02-6952-0387
사업자번호 : 794-87-01221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3-서울서대문-0500호

Copyright © (주)딜사이트, All Rights Reserved.